

2016학년도 임용고시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이번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에 합격한 11학번 임성화입니다. 합격하면 꼭 합격수기를 써야지 하면서도 글재주가 없어 망설였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쓴 수기는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다양한 합격수기들을 읽어보고 자신만의 공부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자신만의 공부방식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1> 1차 공부

1. 특수교육학

재수 때 공부한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월에는 계절학교를 하느라 공부를 하지 못했고 2월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태구 강사의 특수교육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초수때 서진 강의를 듣고 나서 그래도 기본내용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김태구 강사의 강의를 들으니 새롭고 신세계를 맛본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김태구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 서진강사의 기본 이론 강의는 기본에 맞추어진 강의이므로 초수생들에게는 추천 드리나, 좀 더 심도있게 토대를 닦고 싶다는 분들은 김태구 강사의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3월부터는 기출분석을 시작하였으며 7-8월에는 김태구 강사의 문제풀이반 강의를 들었습니다. 9-11월에는 강의를 듣지는 않았으며 여러 강사들의 모의고사 문제 자료를 받아 풀었습니다. 문제 자료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취약한 분야를 찾아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암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외워야할 중요한 개념이나 외워지지 않는 개념 등을 작은 노트에 모아 적어 외웠습니다.

저는 따로 서브노트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인드맵을 봐도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고 외워지지 않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론서에 기출되었던 개념을 체크하고 기출 각론과 다른 강사가 강조했던 내용 등을 한 이론서에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험 전까지 이론서를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2. 초등교육과정

스터디를 토대로 초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2월부터 4월초까지 백승기강사의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으며 5월까지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면 무료로 제공되는 기출분석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강의를 듣지 않고 스터디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초과정은 기출분석을 하기보다는 기출분석 책에 나온 해설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초과정 교학방평이나 내용체계는 특과정과 헷갈릴 것 같아서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3. 특수교육과정

초수 때 특과정을 거의 외우지 않고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보기 위해서 5월초부터 특과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과정 또한 초과정 스터디에서 함께 외우기 시작하였으며, 꾸준한 반복을 위해 밴드스터디를 병행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월~수에는 국어, 목~토에는 수학, 이런식으로 3일에 한 과목씩 5문제씩 괄호

넣기 문제를 만들어 시간 내에 댓글에 답을 달아 올리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꾸준히 잘 참여할 수 있는 성실한 스터디원들을 만나 시험 전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과정은 하루아침에 암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반복을 통해 눈으로 익혀둘 것을 강조드리며 중요한 문장은 문장 전체를 통으로 암기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청킹을 활용하였고, 노래나 두문자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외우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4. 논술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하므로 논술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저는 밴드스터디를 통하여 논술을 공부하였습니다. 5월부터 시작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기출을 쓰는 연습을 하였고 자신이 쓴 원고지를 사진이나 스캔을 떠서 올리고 댓글로 첨삭 받았습니다. 9월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논술을 작성하였습니다. 한 시간 내에 구상과 더불어 원고지 작성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 연습 시에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키워드에 충실하게 적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후에는 시간을 재어 20분 안에 구상을 하고 원고지에 적는 것까지 50분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연습하였습니다. 논술을 혼자 공부하게 되면 자신만의 틀에 갇혀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온라인을 활용해서라도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논술 공부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5. 장특법

장특법 또한 초과정 스터디와 병행하여 외웠으며 7월부터 카톡스터디를 활용하여 주 6일 외웠습니다. 많은 범위를 하지 않고 1조항씩 나누어 정시에 문제를 내서 카톡에 올리고 바로 풀어 즉시 사진으로 찍어 인증하였습니다. 장특법 또한 양은 적지만 단기에 외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볼 것을 강조드립니다.

첫째, 스터디를 활용하세요.

1학기에는 학교수업도 있고 교생실습도 있고 시간이 나지 않아 힘드실텐데요, 자신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능합니다. 특히 초수생들에게 스터디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특꿈에서는 다들 재수 이상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모십니다. 하지만 초수생들도 환영하는 스터디 모집 글도 많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스터디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출분석은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답정리가 아닙니다. 정답, 오답, 문제에 제시된 예시 등 문제에 제시된 글자 하나 하나를 씹어 먹는다는 생각으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번 합격 특강 때 기출분석 강의해주신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출분석을 꼭 반복해서 하시길 강조드립니다.

셋째, 인출이 잘되어야 합니다.

분명 책을 볼 때는 내가 다 외우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문제를 보면 어떤 것을 묻는 건지 기억이 안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밖으로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인데요, 반복적인 인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경직형 뇌성마비'의

특징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즉시 인출하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 내용들을 자신의 틀로 정리하여 꺼낼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세요.

넷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초수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공부할 때 옆 친구 의식하지 마시고 노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임용합격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는 기본만 공부해 놓고 재수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합격하지 못합니다. 재수 때도 똑같은 생각이 들면서 삼수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임용준비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초수생입니다. 초수생은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충실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공부하고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장수생이라 할지라도 기본에 충실한 초수생은 따라가기 힘들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세요.

다섯째, 초과정을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로 초과정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래 출제된 문제수를 볼 때 초과정이 특수교육학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과정은 최근 기출이 적게 되는 추세이므로 초과정을 놓지 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초과정은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기 보다는 꾸준히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2> 2차 공부

2차 준비 역시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초수 때는 2차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때 2차 준비를 처음 시작하였는데, 가지고 있는 2차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고 2차 준비는 처음이라 막막했었습니다. 1차 점수가 너무 부족하여 2차 준비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되어도 나중에 최종합격을 위한 준비단계이며 자료를 남겨놓는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2차 준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면접 준비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서 2차를 준비하였고, ‘강한나 면접 및 수업실연’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출을 반복하였고 일주일에 해야 할 면접기출 가답안을 작성한 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문제를 뽑아 시간을 재서 구상형 문제를 작성하고 즉답형도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지도안 작성

처음에는 시간을 재어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에 충실하기 위하여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달이 될 때쯤 시간을 재서 지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도안 작성 시간은 60분이지만, 50분 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3.수업실연

수업 실연 주제는 시험 때와 똑같이 즉석으로 주제를 주고 구상 시간 가지고 실연하였습니다. 스터디원들 앞에서 수업실연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막판에는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주고 받기도 하였으며, 시험 몇 주 전에는 현장 선생님께 동영상으로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곧 5월이고 교생실습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부를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용시험은 오랜 시간 달리는 마라톤 같습니다. 처음 스타트가 빠르고 알차다고 해서 결승점에서 지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저만의 공부방법을 찾느라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좌절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공부방법을 찾게 된다면 꼭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6월부터는 정말 열심히 달리셔서 초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